

01 교회소식

축복이 넘쳐 나네~

이번 추수감사절은 불같은 기도로 42일간 진행된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 마지막 날 시상식과 겹쳐 더욱 감사로 충만했다.

02 생명의 말씀

믿음으로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려면 창조주 하나님을 진정 믿고 그 믿음을 내보여야 하며,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체험할 수 있다.

03 기획특집

주님의 선한 일꾼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영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자격에 대해 살펴본다.

04 간증

“권능, 체험하니 더욱 믿음이 됩니다!”

참 신이신 하나님을 만나 영육 간에 축복받은 중국 박미진 집사와 하나님 권능으로 초기 위암을 치료받은 황우백 장로 간증.

만민뉴스

제815호 2017년 11월 26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풍성한 열매로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우리 교회는 지난 11월 19일, 한 해 동안 질병, 사고,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영혼이 잘되는 등 영육 간에 풍성한 열매로 축복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단 장식은 최상품의 곡물류, 근채 및 엽채류, 과일류 등 총 292종으로 꾸며졌으며, 열매를 담은 큰 하트 아래 앞부분에는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의 금모래 은모래 연회장을 연상케 했고, 하트 양 옆에는 만민의 영혼들과 늘 함께하는 목자의 공간을 빛으로 표현하였다. 아름다운 아랫단 장식은 여선교회총연합회가 주관하고 시설관리국, 차량국, 레위 및 만민봉사대가 함께하였으며, 남선교회총연합회, 기도제물연합회, 에스더회, 지교회를 비롯해 많은 성도의 찬조로 이뤄졌다.

2017년 하반기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 시상식

11월 19일(주일) 밤, 만민기도원 주최로 '목자의 권능의 열매'라는 주제 아래 10월 9일부터 42일간 진행된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 기도회 시상식이 있었다.

이날 행사는 이수진 목사(교역자회 회장)와 신동초 목사(신학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40일 이상 참석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200명을 추첨하여 선물을 증정하였고, 그 사이사이에 예능위원회 소속 팀들의 성령 충만한 공연으로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대상은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추첨한 김숙자 집사(66세, 3세대 31교구)에게 돌아갔으며(맨 아래 우측 사진), 마지막 순서로 산상기도 중인 이 목사가 전화를 통해 40여 분간 근본의 소리로 축복 기도를 해 주었다. 놀라운 기사와 표적, 권능의 역사로 함께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동안 믿음으로 구하고 행한 모든 것이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을 받아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간구했다.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은 21일을 단위로 매일 밤 2시간 이상 다니엘철야를 인도하여 국내외 성도들은 물론 GCN방송(www.gcntv.org)과 인터넷 매체를 통해 전 세계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



를 위한 합심기도에 동참할 수 있다. 매년 전·후반기로 두 차례 진행되는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축복 기도와 이복님 기도원 원장의 헌신으로 마음의 소원에 응답받으며 불세례를 받아 영적 성장을 이루는 등 영육 간에 넘치는 응답과 축복을 받아 왔기에 뜨거운 사모함으로 동참하고 있다.

2017년 후반기에 진행된 이번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는 다가오는 12월 25일, 뜻깊은 성탄절을 앞두고 목자의 사랑



과 공의를 힘입어 아름다운 변화의 열매로 나오고자 하는 성도들이 여는 때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과 기도의 향을 올렸다. 특별히 주의 종과 장로, 레위족

(교회직원)과 각 선교회 일꾼들은 자신의 사명을 충성 되게 감당하기 위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며, 자신을 깊이 있게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이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1:3)

믿음으로 응답을 받으려면

혹시 “저도 그러고 싶지만 제 믿음이 너무 연약합니다.” 하는 분이 계시다면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작년 수련회 때 실명된 눈이 보이게 된 박상영 집사님은 뇌수술 후유증으로 왼쪽 눈이 실명되어 근 28년 동안 보이지 않았기에 치료받을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련회 때 권능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설교 말씀을 들으며 믿음을 가졌지요. 결국 수련회 첫째 날 믿음으로 기도받은 성도님은 캄캄한 곳에 불이 들어오듯이 빛이 보였고, 그 후로 사물의 형체까지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련회 둘째 날 체육대회 시 선수들 중에는 부상을 입었다 해도 출전을 포기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첫째 날 믿음으로 치료받아 그 다음날 체육대회에 출전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계주 선수였던 방해련 자매는 왼쪽 어깨에 금이 가서 의사로부터 달리는 것은 무리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기도받고 치료받아 아무 이상 없이 달려 영광 돌릴 수 있었고, 이수영 권사님은 종아리 근육이 파열되어 3주 진단을 받았지만 기도받은 뒤 치료받아 애드벌룬 굴리기 선수로 뛸 수 있었지요.

왼쪽 편마비를 치료받은 중국 2교구 썬리 집사님은 “목자님이 품고 계시고, 또 기가 소진되도록 중보기도 해 주셨기에 온전히 치료받을 것을 믿었습니다.”라고 간증하였습니다. 이처럼 목자가 쌓은 공의를 믿고 치료받으며 응답받기를 여러 분보다 더 간절히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굳건히 믿으심으로 마음껏 응답받아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2. 믿음의 받침대를 준비해 응답받을 수 있는 믿음을 내보여야 합니다

믿음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눈에 보여야 합니다. 응답받기 위해 믿음의 받침대를 준비해야 하지요. 무엇보다 먼저 죄에서 돌이켜야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마음에 죄를 품고 있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

함이 부족하다면, 권능의 역사에 대해 믿는다 해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오지 않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했고, 시편 66편 18절에는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은 죄의 답을 털어야 합니다. 물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또는 죄악에 얼마만큼 몸담고 살아왔는지에 따라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 쌓아야 할 공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와 믿고 기도를 받기만 해도 치료받는다면, 밀린 십일조를 드린 후 질병을 치료받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일꾼 된 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지 않은 말이나 깊은 마음속의 비진리까지 회개할 때 응답받지요. 불평했던 것, 육신의 생각 속에 판단했던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 사람 앞에 보이고자 충성했던 것, 기도를 쓴 것 등을 회개한 후 기도받아야 속히 치료가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에 있어서도 주관받은 것이 각자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한 통증이 있는 중에도 믿음으로 교육이나 수련회에 참석해 치료를 받는다면, 다니엘철야 기도회를 마음 다해 드리고 3일 금식으로 준비하여 응답받기도 합니다. 또한 기쁘게 봉사함으로,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정성껏 예물을 심음으로 갖가지 질병들을 치료받아 영광 돌렸지요. 이처럼 사람마다 심음과 행함은 달랐지만 성령이 주관하실 때 그 음성에 순종한 것은 동일했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한 대로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면 아무리 큰 문제 앞에 있다 해도 응답받았다는 확신과 평안이 옵니다. 성령이 주관하시는 대로 순종하십시오. 응답받기 위한 공의를

아름답게 채워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3. 믿음은 반드시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는다는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다 보면 때로는 원치 않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 질병이나 연약함이 찾아오면 몸과 마음에 고통이 따르게 되니 그 상황 자체만 보면 그저 고난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물론 영광스러운 열매를 얻기까지는 믿음의 행군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애통하며 회개도 하고, 응답의 공의를 채우기 위해 선한 행실을 쌓아갑니다. 요한 삼서 1장 2절에 말씀한 대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공의에 합당하기만 하면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덤으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권능을 체험한 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목자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더 견고해졌습니다. 천국 소망과 희락이 넘칩니다. 여러모로 넘치는 축복을 받아서 너무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간증으로 영광 돌리는 자녀들을 볼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실까요? 믿음의 행함은 반드시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위대합니다. 여러분 모두 믿음으로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 삼위일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진정 믿고 그 믿음을 내보여야 합니다. 그럴 때 살아 계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보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요 11:40). 그러면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1.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반드시 응답하심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 11:24)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응답받을 수 있을까?’ 의심하거나, 믿었다가도 중도에 믿음이 변질되면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6-8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자 할 때 원수 마귀 사단은 어찌하든 방해하고자 육신의 생각을 불어넣어 의심하게 하지만, 이럴 때 요동하지 말고 더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요식업)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월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의행 :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 된 자격

인간을 창조하고 경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돌아보며, 주님처럼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일꾼을 찾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구체적인 자격 8가지에 대해 살펴본다.

1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전 4:20). 그래서 반드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만 원수 마귀 사단의 꾀계를 파할 수 있고, 어둠의 권세 아래 놓인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다(엡 6:12). 하나님과 교통할 때라야 성령의 음성과 주관,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최소한 하루에 2시간 이상, 능력을 받아 크게 영광 돌리려면 3시간 이상 불같은 기도를 꾸준히 쌓아야 한다.

2

온전히 주일 성수하는 사람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영적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믿음의 행함으로, 하늘나라의 시민임을 증거하는 가장 기본적인 증표라 할 수 있다(빌 3:20).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십계명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출 20:8~11). 주일은 세상일을 하지 않고, 주님의 몸 된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며 영적인 안식을 누리는 날이다.

일꾼이라면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주일 대예배와 저녁예배에 참석해 하루를 거룩하게 보내고, 각종 공예배에도 참석해 본이 되어야 한다.

3

온전한 십일조 생활을 하는 사람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는 것은 모든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행위로서,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넘치는 축복을 주시기 위한 근거로 삼기 위해 최소한의 씨앗을 심도록 명하신 것으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십일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자녀로 확실히 인정받고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다(말 3:10). 따라서 일꾼이라면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4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리는 사람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린다’(히 12:4)는 것은 온전한 성결을 이루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기도함으로 마음 안의 죄성들을 벗어 버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죄를 버린 만큼 선과 사랑이 채워지니 영적인 충성을 할 수 있다. 미움을 버리고 사랑이 채워지면 영적인 사랑을 줄 수 있으니 파리한 영혼들이 살아나 힘을 얻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된다. 곧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려야 일꾼으로서 영혼들을 잘 갈무리할 수 있는 것이다.

5

희생하고 순종하며 온 집에 충성하는 사람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다. 더욱이 일꾼이라면 자기 의를 주장하지 않고 질서를 좇아 진리 안에 순종함으로(마 12:30), 자신부터 순종의 본을 보여 주어야 회원들이 그 말에 순종하며 믿고 따른다. 또한 온 집에 충성하는 사람이라야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은 물론, 맡겨진 일 이상을 넉넉히 감당하며 자기가 속한 모든 분야에서 충성할 수 있다. 여기에는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아끼지 않고 드리는 희생이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한다.

6

사랑과 덕이 있는 사람

사랑은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원동력이 되기에 영혼을 갈무리하는 일꾼들에게 꼭 필요한 항목이다. 이와 더불어 덕(德)을 갖춰 먼저 따스한 말을 건네고 상대가 잘못 했어도 먼저 손을 내밀어 잡아 줄 수 있어야 하며, 부족함을 이해하고 포용해 줌으로 누구와도 걸리지 않고 매사에 악으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야 한다. 이 마음이 되어야 많은 영혼을 품고 영으로 이끌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큰 사랑을 받았으니 일꾼이라면 영혼들에게 그 사랑을 줄 수 있어야 한다(요일 4:11).

7

리더십(지도력)이 있는 사람

머리 된 일꾼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에 맞는 목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기도 가운데 응답받아 회원들이 최대한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갈 수 있는 통솔력이 있어야 한다. 내성적인 사람이라도 성령에 붙들린 바 되면 더 크게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영적인 지도력은 타고난 성품이나 기질보다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지에 달려 있다.

8

겸손한 사람

믿음이 성장할수록,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 깨달아 알면 알수록 자신은 티끌만도 못한 존재라는 고백이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고, 자신이 알고 체험한 것은 지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상대의 티나 허물이 보이지 않고, 설령 보인다 해도 이해하며 기도해 주고 잘못이 있다면 사랑으로 권면해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따라서 많은 사람이 그 안에 깃들여 쉬기를 원하고 겸손하니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다(잠 18:12).

12
 DECEMBER 2017
 11/26 ~ 12/2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하나님의 뜻 2 ■ 선 16-17
- 믿음의 분량 1-3 ■ 사랑 1-4
- 십자가의 도 1-4 ■ 지옥 1
- 마음발을 개간하자 4-7
- 요한일서 강해 16-22
- 요한계시록 강해 103-110

GCN TV 설교

- 영으로 들어가는 습관 2(이수진 목사)
- 자기 발견 1(이미경 목사)
- 목자님의 열매 3(이희선 목사)
-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신동초 목사)
- 2계명 1(정구영 목사)
- 목자의 권능의 열매(김태식 목사)

예능 프로그램

- 관능 스페셜 4 ■ 마지막 때 4
- 모두 드러요 48 ■ 창조와 과학 14
- 옛날 옛적에(시즌2) 7
- 내 마음의 찬양 28
-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88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다시해보기) 23

해외성회 프로그램

- 회상 7
- 이스라엘 연합대성회 1
- 믿음으로 걸어온 길 10

“참 신이신 하나님을 만나 치료받고 축복도 받고 있어요”

2006년, 중국 주재원인 남편을 따라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낯선 이국땅을 밟았습니다. 아이들에게 한국친구들을 만들어 줄 요량으로 한국교회를 찾게 되었지요. 딸아이만 교회에 보내기가 죄송해 어린 아들을 안고 저도 함께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불교 신자였던 저는 마음이 영 편치 않았고, 마치 부처님을 배반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동안 믿어온 불교 교리가 최고임을 스스로 확증하고자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매일 성경을 읽다보니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이 뚜렷이 믿어지고 은혜가 느껴져 기도도 드리게 되었지요.

성경을 세 번 통독하고 필사하기 시작해 하루에 3~4시간씩 몰두하여 330여 일 만에 성경 필사를 마치고, 주기도문을 하루에 100번씩 백 일간 작성해 기도하였습니다.

1만 번이 다 되어가던 2009년 9월 어느 날, 지인을 통해 만민중앙교회와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www.manmin.org)에서 당회장의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큰 은혜가 되어 하루 3~7편씩 2년 정도 듣고 예배도 드리게 되었지요.

2013년 5월에는 금요일아침예배 2부 시간에 당회장의 권능의 기도로 8명의 주의 종과 일꾼들이 천국, 지옥을



박미진 집사 (53세, 중국)

다녀와 간증하는 놀라운 일을 목도하며 천국과 지옥, 영의 세계가 있음이 확실히 믿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혈압이 200을 넘어 병원에 실려 간 적이 있었고, 약으로도, 주사로도 혈압이 내려가지 않아 매우 위험한 적도 있었습니다. 당회장을 통해 나타난 놀라운 치료의 간증들을 보면서 저는 늘 혈압 약에 의존하며 믿음을 내보이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2016년에 7일 금식으로 후반기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 기도를 준비하고 참석하면서 하나님께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저는 혈압 약을 끊고, 예배 시간에 당회장의 환자기도를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올해 초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고혈압이 치료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지요. 할렐루야!

이뿐 아니라 제가 경영하는 옷 가게는 불경기와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하루 종일 가게 문을 닫고, 평일에는 다니엘철야 기도회와 금요일아침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일찍 문을 닫는데도, 하나님께서 손님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영업시간에 맞춰 보내주시니 수입에 전혀 지장이 없지요.

주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런 저를 보고 너무 교회에 빠졌다고 수군거렸지만 지금은 오히려 저를 부러워합니다. 사업장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목자의 권능과 주님을 전할 수 있음에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희 가족이 참 신이신 하나님을 만나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가장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의 소망을 주신 생명의 목자, 당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황우백 이명장로 (70세, 3세대 28교구)



2017년 1월 초, 건강검진을 받고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위에 궤양이 있었는데 조직검사를 해 보니 초기 위암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매우 당황스러웠고 하나님께 치료받아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수많은 성도가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온갖 질병을 치료받아 간증하는 모습을 평소 익히 듣고 보아온 까닭이었지요.

하나님께 응답받아야겠다는 절박한 마음이 생기니 주일을 지키는 데 만족하던 저의 신앙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성경을 정독하며 하나님 마음을 알고자 하였고, 각종 예배 및 다니엘철야에도 참석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아내 김혜순 권사와 함께 기도와 금식으로 준비하며 그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했지요.

그러던 5월 15일, 본당 2층에서 예배를 드리던 저는

“하나님 권능으로 초기 위암을 치료받았습니다”

당회장의 모습을 보는 순간, 하나님 말씀을 생명 다해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순종하여 그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죄송하여 저절로 통회자복이 나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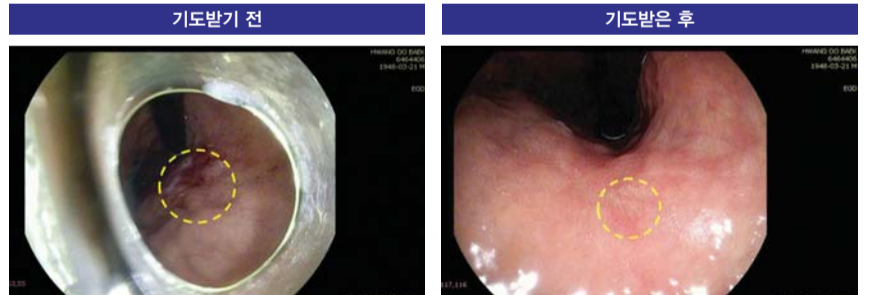
한참을 울다가 당회장을 뵈었는데 신기한 것이 보였습니다. 바로 당회장의 왼쪽 가슴에서 오로라 빛같이 영롱하고 아름다운 빛이 반짝반짝 비추기를 약 10분 정도 하였지요. 그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위암 치료를 마음에 품고 당회장과 약속하였습니다. 이때 치료의 확신이 오며 감사가 넘치고 마음이 아주 시원해졌지요.

다음날인 5월 16일, 위내시경 검사와 CT 촬영을 한 결과 의사는 “다 나왔네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라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뿐 아니라 이날 검진 결과 시력이 좋아진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소 황반변성(망막 중심의 황반 기능이 떨어지는 질환)으로 항상 뿌연 이물질들이 눈에 끼

어 있어 불편해서 매일 기도하면서 꾸준히 무안단물(출 15:25)을 뿌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앞이 환해지더니 이날 검진 결과, 좌우 0.3, 0.4였던 시력이 0.7, 0.6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후, 저는 구원의 확신도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예배가 즐겁고 성경을 읽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니 너무 행복합니다. 질병을 치료받은 것도 기쁜 일이지만, 구원받은 기쁨은 더욱 크지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위암으로 의심되어 조직검사를 한 결과 암으로 진단됨. ▲ 암이 발견된 곳에서 추적 검사를 했지만 발견되지 않음.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아침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민교회 강릉시 하평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남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민교회 경남 김해시 분성로 476 ☎055)322-7055, 010-6605-2254
- 남울산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도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창원민교회 경남 창원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청주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3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2909-2862
- 여수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학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길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문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춘천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산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민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남로 153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감탄지성전 인천시 서구 원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31)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학대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성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2208-5719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련빌D ☎031)905-2419, 010-2276-1014